

“都”의 의미기능으로 바라본 개체성 부여 대상 선택 문제*

陳俊和**

◁ 목 차 ▷

- I. 들어가면서
 - II. “都”의 의미기능
 - III. 개체성 부여 대상 선택
 - 1. “都”의 개체성 부여 가능 대상의 형식과 의미 및 조건
 - 2. “[+다수개체]NP1+[+다수개체]NP2+都+VP”
 - 3. “(X)+[+단일개체]NP+都+(不)+VP”
 - IV. 나오면서
-

I. 들어가면서

현재 국내·외 중국어법학계에서 소위 범위부사로 알려져 있는 부사 “都”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구조주의나 혹은 형식주의(특히 형식의미론)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져 왔으며,¹⁾ 이마저도 대부분의 논의가 “都”가 문장 내에서 행하는 그 의미기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 않고, 설령 “都”의 의미기능이 문장 내 어떠한 부분과 의미적으로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가? 이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라는 “都”의 의미적 지시대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논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묘사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 실정이다.

* 본고는 《2011年 韓國中文學會 春季 國際學術大會 第73次 定期學術大會》의 발표논문을 수정·보완한 논문이다.

** 한북대학교 인문대학 중국어학과 전임강사

1) 呂叔湘(1980), 朱德熙(1984), 王還(1983,1988a,1988b), Lee(1986), Wu(1999) 등이 그렇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진준화(2010)에서 새롭게 제시한 “개체성 부여”²⁾라는 “都”의 의미기능을 근간으로 하여 과연 “都”가 사용된 문장 내에서 “都”로 하여금 그 의미기능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의 형식과 의미는 무엇이며,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고, 이러한 대상들이 문장 내 다수 존재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또한 본고가 제시한 “都”의 의미기능 수혜 조건에 의거해 의미기능의 수혜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이 “都”와 함께 사용된 독특한 구조의 문장은 어떻게 처리해야 효과적인지를 인지언어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묘사의 틀에서 벗어나 해석의 차원에서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II. “都”의 의미기능

먼저 다음의 중국어 문장을 보도록 하자.

- | |
|-----------------------------|
| ① 我們買了十個蘋果。 ② 我們都買了十個蘋果。 |
|-----------------------------|

위의 중국어 문장 “①”과 “②”의 의미는 어떻게 되는가?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같은가? 아니면 다른가? “①”과 “②”는 “都”의 사용 여부가 다르다. “①”과 달리 “②”에서 “都”의 사용은 무언가 다른 의미를 전달하고자 사용한 것 일 것이다. 이때 “都”의 사용은 어떠한 의미의 실현을 위함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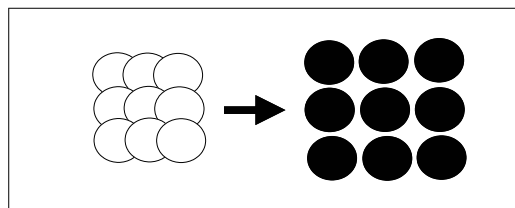
위의 “②”와 같이 현대 중국어에서 소위 범위부사³⁾로 일컬어지는 “都”가 사용된 문장에서 “都”는 과연 어떠한 의미기능을 수행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지금까지 중국어어법학계에서는 각기 다른 연구 방법론을 채택해 저마다의 해석으로 “都”의

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진준화(2010)과 본고의 “II”부분을 참조 바람.

3) “都”의 의미기능을 “개체성 부여”로 본다면, 과연 “都”를 진정한 범위부사라 말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에 대해선 진준화(2010)이 결론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좀 더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라 본고 역시 생각한다. 이는 본고의 논의 밖의 문제이므로 현재 통용되고 있는 “범위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며, 이후 지면이 허락된다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의미기능에 대한 답을 달리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정설로 여겨졌고 여겨지고 있는 “都”의 의미기능은 문장 내 복수명사성 성분에 대해 “전체총괄”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또한 이러한 견해를 기반으로 “전칭양화설(universal quantifier), 분배자(distribution operator), 초점민감자(sensitive operator)”등으로 부사 “都”가 갖는 의미기능을 설명하는 견해도 엇볼 수 있다.⁴⁾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견해들이 부사 “都”가 문장 내에서 수행하는 의미기능을 적절하게 설명해 낼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진준화(2010)에서는 소위 범위부사로 알려져 있는 “都”가 문장 내에서 수행하는 의미기능에 대해 인지언어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기존의 견해와는 비교적 다른 견해를 밝힌바 있다. 진준화(2010)이 제시한 이러한 “都”의 의미기능에 대한 견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제시한 “개체성”이란 개념을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그가 제시한 “都”의 의미기능 핵심이 바로 이 “개체성”이란 개념에 있기 때문이다. 즉, 그는 “개체성”이란 개념을 「존재하는 다수의 실체 간에 명확한 경계를 갖는, 각 실체의 독립적인 성질」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 다음의 그림을 제시하여 설명하였다. 함께 보도록 하자.



〈진준화(2010)이 제시한 “개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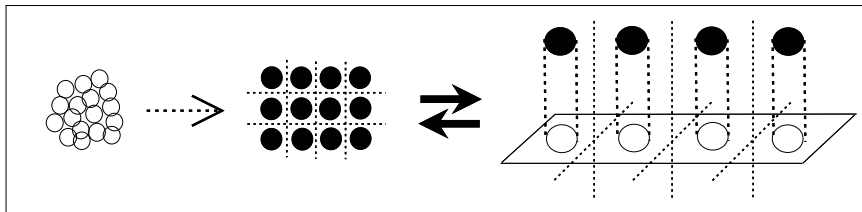
위의 그림을 보면 왼쪽의 “○”로 이루어진 모형은 아직 개체성을 부여 받지 못한 개체들이 서로 혼재되어 있음을 나타내며, 오른쪽의 “●”로 이루어진 모형은 서로 혼재 되어있던 다수의 실체들이 실체 간 경계가 명확한 각각의 개체로 분화하여 그 독립적인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진준화, 2010). 그렇다면 이러한 “개체

4)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진준화(2010)을 참조 바람.

성”이 “都”가 수행하는 의미기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진준화(2010)은 “都”가 수행하는 의미기능에 대해 이러한 “개체성”의 개념을 부과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부사“都”는 문장 내 다수의 의미를 내포하는 명사성 성분에 대해 개체 윤곽을 통한 개체성 부여 혹은 확립의 의미기능을 가진다』

“都”가 갖는 위와 같은 의미기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그가 제시한 다음의 그림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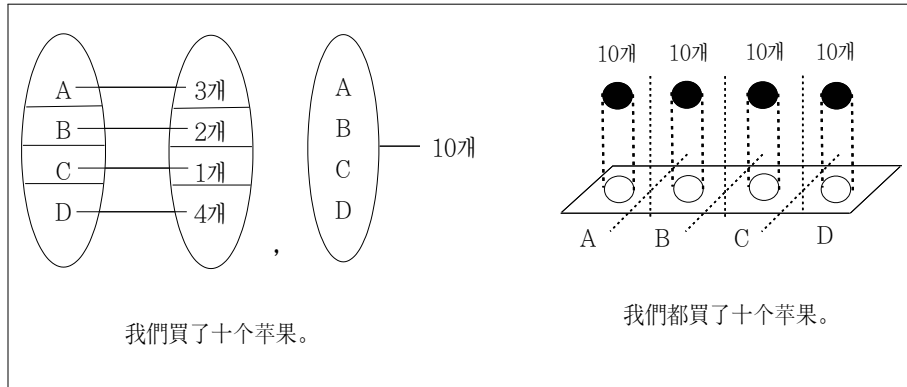
〈진준화(2010)이 제시한 “都”의 의미기능〉

위는 부사 “都”가 갖는 의미기능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그림이다. 즉, 서로 혼재되어 존재하는 실체들(“○”으로 이루어진 모형)에 대해 “개체성”(“●”으로 이루어진 모형)을 부여 혹은 확립하는 의미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진준화, 2010).

이로 볼 때, 앞서 제시한 “①”의 의미는 중의성을 갖는다. 즉, “我們”을 구성하는 구성개체(구성원)가 각각 구입한 사과 수의 합이 “10개”일 수도 있고,⁵⁾ 구성개체들이 함께 “10개”의 사과를 샀다는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다. 반면에, “②”의 의미는 “都”로 인해 하나의 의미만을 전달한다. 즉, “我們”을 구성하는 구성개체들이 “都”로 하여금 개체성을 부여 받아 각각의 구성개체가 “10개씩의 사과를 샀다는 의미만을 전달한다.⁶⁾ 이를 다음의 도식으로 확인해 보자.

5) 만약 “我們”의 구성원이 “4명”이라 할 때 구성원 각각이 구입한 사과 수의 수는 다를 수 있다. 즉, “A는 3개”, “B는 2개”, “C는 1개”, “D는 4개” 등과 같다.

6) 만약 “我們”의 구성원이 “4명”이라 할 때 구성원 각각이 구입한 사과 수의 수는 “10개”로 모



〈“都”의 의미기능 실제〉

이와 같은 진준화(2010)의 견해는 “都”가 문장 내에서 수행하는 의미기능을 매우 적절하면서도 타당하게 설명한다고 본고는 보고 있다. 즉, “都”는 문장 내에서 의미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관된 명사성 성분에 대해 개체 윤곽을 통한 개체성 부여 혹은 확립의 의미기능을 가진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문장 내에서 의미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관된 명사성 성분이 과연 어떠한 것들이 존재하며, 이 중에서 “都”의 의미기능을 수혜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都”와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진준화(2010) 역시 언급한 바 있지만, 간단한 언급에 그치거나 “都”의 의미기능을 설명하는데 있어 보조적인 부분으로 다루었을 뿐 구체적으로 논하지는 않았다.⁷⁾ 따라서 본고는 진준화(2010)이 제시한 “都”의 의미기능을 기반으로 위와 같은 문제를 다음절부터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두 “40개”를 구입했다는 의미이다. 즉, “A 10개”, “B 10개”, “C 10개”, “D 10개” 등과 같다.

7) 진준화(2010)은 「“都”의 의미기능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명사성 성분은 그 표현 형식에 있어 단·복수에 상관없이, 의미상으로 다수의 의미를 내포할 수 있으면, “都”의 의미기능을 수혜할 수 있다.」는 정도로 밝혔을 뿐 구체적으로 논하지는 않았다.

Ⅲ. 개체성 부여 대상 선택

소위 “개체성 부여 대상”이라 함은 문장 내에서 “都”의 의미기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성분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명사성 성분이 이에 해당된다.

1. “都”의 개체성 부여 가능 대상의 형식과 의미 및 조건

“都”를 포함한 문장에서 “都”와 의미적으로 연관되어있는 명사성 성분, 즉 “都”의 개체성이란 의미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먼저 다음의 예문을 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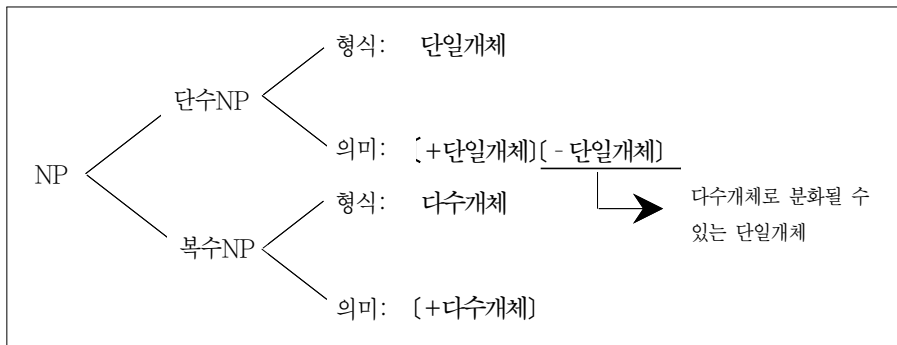
- (1) 我的朋友們都在睡覺。⁸⁾
(내 친구들 모두가 잠자고 있다.)
- (2) 張三和李四都去過上海。
(張三과 李四는 모두 상해에 가본 적이 있다.)
- (3) 所有的學生都要到附中學習。
(모든 학생들이 모두 부속고교에서 공부하고 싶어한다.)
- (4) 每個人都買了蘋果。
(개개인 모두가 사과를 샀다.)
- (5) 她這些天都很不開心。
(요 며칠 동안 그녀는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다.)
- (6) 這幾本書我都背得出來了。
(이 몇 권의 책들은 모두 내가 외운 것들이다.)
- (7) 學生都回來了。
(학생들 모두가 돌아왔다.)
- (8) 我甚麼都能吃。
(나는 무엇이든 먹을 수가 있다.)

8) 본고에서 사용된 예문들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간논문, 북경대 2004년판 copus, 북경대CCL”에서 발췌하였음을 밝혀둔다.

- (9) 我把一個饅頭都吃了。
 (나는 만두 한 개를 전부 먹어버렸다.)

위의 예문 (1)에서 (9)까지를 살펴보면 모두 “都”가 사용되어진 문장임을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都”와 의미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즉 “都”로 하여금 개체성을 부여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문장 내 무엇인가? 먼저 단·복수 명사성 성분의 형식과 의미를 논의한 후 이 질문에 대답해 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형식과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각각의 언어형식은 그들이 갖는 고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은 형식과 의미가 일대일 대응을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 특히 중국어의 단·복수를 나타내는 명사성 성분이 그러하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다음의 도식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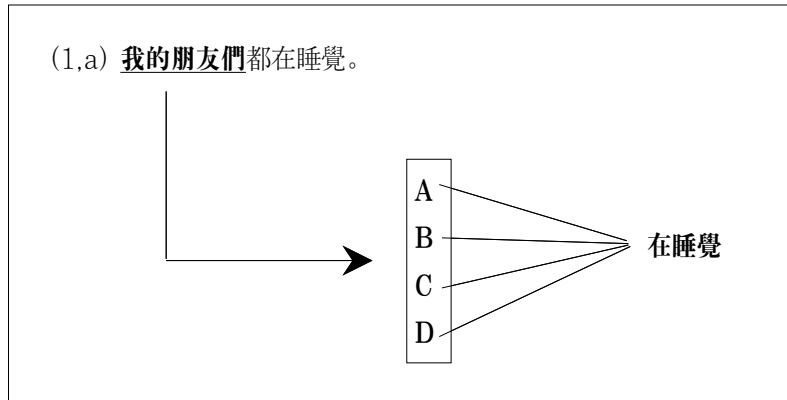
〈명사성 성분 단·복수의 형식과 의미에 관한 대응 체계〉

위의 도식은 중국어 명사성 성분 단·복수의 형식과 의미에 관한 대응 체계를 나타낸 것이다. 즉, 중국어는 다른 언어와 달리 형태적으로 단·복수의 표현이 제한된 언어이기 때문에 문장에 사용된 언어형식과 의미를 모두 고려해야만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중국어에서 “보통명사”가 그러하다.9)

9) 중국어에서 보통명사는 하나의 형식으로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매우 독특한 명사성 성분이다. 즉, 사물의 속성을 나타내는 類로써 기능을 한다면 단일개체의 의미로, 그렇

그렇다면 이러한 명사성 성분 단·복수의 형식과 의미에 관한 대응 체계 중에서 어떠한 의미특징이 “都”의 의미기능과 연동해 개체성 부여 대상이라는 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는 것일까? 바로 [+다수개체]의 의미특징을 지니면 “都”의 의미기능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단수NP형식이라도 의미적으로 [-단일개체](즉, 다수개체로 분화될 수 있는 단일개체)¹⁰⁾의 의미특징을 가지면 이 역시 “都”에 대한 개체성 부여 대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같다면, 위 예문 (1)부터 (9)까지 사용된 “都”의 개체성 부여 대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다수개체] 의미를 갖는 명사성 성분의 개체성 부여 실제〉

(1)에서 사용된 “都”의 개체성 부여 대상을 예로 확인해 보면, 문장에서 [+다수개체]의 의미특징을 지닌 명사성 성분은 “我的朋友們”이다. 이 성분은 “都”를 통해

지 않고 다수의 의미를 나타내는 외연적 數를 표현 한다면 다수개체의 의미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진준화(2009), (2010)을 참조 바람.

10) 여기서 말하는 “다수개체로의 분화될 수 있는 단일개체”의 의미는 단일개체가 분화과정을 거쳐 다수개체로 분화되더라도 본래 분화되기 전 단일개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분화 후 다수개체의 각각의 개체도 역시 본래 단일개체가 가지고 있던 속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빵”이란 단일개체가 다수개체로 분화하여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져도 나누어진 각각의 조각 역시 “빵”의 속성을 지닌 “빵”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책상”과 같은 단일개체는 분화과정을 거쳐 분화되더라도 “빵”과 달리 분화된 각각의 조각은 더 이상 “책상”이라는 속성을 갖지 못한다.

개체성의 특징을 부여 받아 “都”의 의미기능이 수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¹¹⁾ 즉, 문장의 의미는 몇 명으로 이루어진지는 알 수 없지만, 존재하는 친구집단이 있다면 이 집단에 속해있는 각각의 친구들이 개체성을 획득해 각각 모두가 문장 내 VP의 사건이나 상태(잠을 자고 있다는 것)를 행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와 같은 식으로 위의 (2)에서 (6)까지의 해석도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문장에서 [+다수개체]의 의미특징을 갖는 명사성 성분(“張三和李四”, “所有的學生”, “每個人”, “這些天”, “這幾本書”)은 “都”를 통해 개체성을 획득해 문장 내 VP의 사건이나 상태를 행한다는 의미를 가진다.¹²⁾ 그러나 “都”가 사용된 모든 문장에서 [+다수개체] 의미특징을 갖는 명사성 성분이 개체성을 부여 받지 않는다. 어떤 문장에서는 단일개체 형식의 명사성 성분이 “都”로 하여금 개체성을 부여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명사성 성분으로 주의할 만 것이 바로 “보통명사”, “의문대사” 그리고 “-NP”구조이다. 즉, 위 예문의 (7)~(9)가 이에 해당한다.

먼저 보통명사가 사용된 (7)을 보면, 중국어에서 보통명사는 사물의 속성을 나타내는 類로서의 기능(단수적 기능)과 외연적 數를 나타내는 數적 기능(복수적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성분이다. 따라서 “都”의 사용으로 인해 “學生”은 단수적 기능에서 복수적 기능으로의 전환을 피해(즉, 다수개체로의 분화과정을 거쳐) 개체성을 부여 받아 문장 내 VP와 연동 문장의 의미를 산출해 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의문대사가 사용된 (8)을 보면, 중국어에서 의문대사역시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어진다. 하나는 단수적 용법인 의문사로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복수적 의미의 비의문용법이 그것이다.¹³⁾

따라서 “都”의 사용으로 인해 “什麼”는 다수개체로의 분화 과정을 거쳐 개체성을 획득해 역시 VP와 연동 문장의 의미를 산출해 낸 것이다. 마지막으로 (9)를 보면, (9)는 앞의 (7)과 (8)과는 사뭇 다른 환경을 보여준다. 즉, 앞의 (7)과 (8)은 본시 두 가지의 의미적 해석이 가능한 성분들 이었다면, (9)에서 사용된 “-NP”구조는

11) “們”과 “都”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진준화(2010)을 참조 바람.

12) 이 중에서도 특히 “所有NP+都”와 “每NP+都”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진준화(2010)을 참조 바람.

13) 이를 보통 중국어에서는 “任指”용법이라 한다. 즉, 의문사의 비의문적 용법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邵敬敏(1996)을 참조 바람.

절대적으로 하나의 의미인 단수적 의미로만 해석이 가능한 성분이다. 즉, 모든 “一NP+都”구조가 반드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¹⁴⁾

그런데 (9)와 같은 “都”의 사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앞의 (7)과 (8)보다 비교적 복잡한 해석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에 대해 진준화(2010)은 劉承峰(2007)이 제시한 “화용수”¹⁵⁾라는 개념의 도움을 받아 다음과 같이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一NP+都”구조는 반드시 문장 내의 VP성분과의 관계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만약 (9)와 같이 “一NP(一個饅頭)”가 개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수 개체로의 분화가 가능 하면서¹⁶⁾, 문장 내 VP역시 “吃”와 같이 동작의 분해가 가능한 분해동사¹⁷⁾라면, 문장의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즉, “一NP”가 “都”의 개체성 부여 대상이 될 수 있는 필요조건은 반드시 “VP”의 동사가 분해동사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반드시 “동사”와의 의미적 연동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만약 다음과 같이 문장 내 동사가 분해동사가 아닌 비분해동사가 사용되면 문장은 비문이 되고 만다.

(10) * 我把一個饅頭都買了。

(나는 만두 하나를 모두 샀다.)

(11) * 我把一個饅頭都扔了。

(나는 만두 하나를 모두 버렸다.)

14) “* 那一本古籍都得到了妥善的處理。(張誼生,2003)” 등이 그러하다.

15) 동량사건에 참여하는 실체의 최소적 물량(임계량)은 화용수를 확정하는데 기준점이 되는 것으로서, 임계량이 실체의 양보다 적으면 문장이 표현하는 사건은 근본적으로 성립되지 않으며, 그렇지 않고 임계량이 실체의 양과 같으면 “화용단수”로, 많으면 “화용복수”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화용복수”만이 “都”의 의미기능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진준화, 2010).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劉承峰(2007)과 진준화(2010)을 참조 바람.

16) 왜냐하면, 만두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어도 쪼개진 각각의 조각 역시 만두이기 때문이다.

17) 여기서 말하는 “분해동사”란 행위의 분화가능성을 의미한다. 즉, 하나의 전체동작이 분화되어 각각의 독립된 동작으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吃”, “看”과 같은 동사는 “먹다, 보다”라는 전체동작이 독립적으로 각각 분화되어질 수 있는 분해동사이고, “扔”, “買”와 같은 동사는 하나의 전체동작이 독립적으로 각각 분화되어질 수 없는 비분해동사이다.

결국, “-NP”와 VP의 의미적 연동이 개체 분화 가능성을 내제할 경우 “都”를 사용하여 “-NP”에 개체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9)의 문장은 여러 조각으로 쪼개어 질 수 있는 만두를 한입 한입 베어 먹는 동작을 통해 만두 전부를 모두 먹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지금까지 “3.1”에서 “都”가 사용된 문장에서 “都”의 의미기능인 개체성을 부여 받을 수 있는 명사성 성분의 특징에 대해 논하였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사 “都”가 사용된 문장 내에서 “都”가 개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의 조건은 [+다수개체] 혹은 [- (다수개체로의 분화가 가능한) 단일개체]의 의미특징을 갖는 명사성 성분이다.

그렇다면, “都”가 사용된 문장에서 만약 위의 논리에 맞는 명사성 성분이 하나 이상 존재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인 다음의 “3.2”를 보도록 하자.

2. “[+다수개체]NP1 + [+다수개체]NP2 + 都 + VP”

우리는 앞의 “3.1”에서 “都”의 개체성 부여 대상이 될 수 있는 성분의 의미적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분이 문장 내에 하나 이상이 되면 “都”의 개체성 부여에 혼란을 일으킬 것인가? 만약 혼란을 일으킨다면 이러한 혼란을 효과적으로 잠재울 수 있는 설명력은 없는가? 먼저 다음의 예문을 보자.

(12) 我們 這些事 都知道。

(13) 這几天 我們 都忙着籌備會計人員培訓班。

위의 예문(12)과 (13)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都”의 개체성 부여 가능 대상이 하나 이상 존재해 “都”로 하여금 그 개체성 부여에 있어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문장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다음과 같이 개체성 부여의 혼란으로 인해 문장은 중의성을 갖게 된다.

- (12.a) 我們這些事都知道。
(우리는 이 몇몇 일들을 모두 알고 있다.)
- (12.b) 我們這些事都知道。
(이 몇몇 일들은 우리들 모두가 알고 있다.)
- (13.a) 這幾天我們都忙着籌備會計人員培訓班。
(요 며칠 우리들 모두는 회계사양성반 준비에 바빴다.)
- (13.b) 這幾天我們都忙着籌備會計人員培訓班。
(우리는 요 며칠 모두 회계사양성반 준비에 바빴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는 언어의 경제성 원칙에 입각해 하나의 문장은 하나의 의미만을 나타내야 의사소통에 있어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할 수 있을까? 「언어의 경제성 원칙에 입각해 위의 (12)과 (13)의 문장 의미를 본다면 하나의 문장이 두 개의 의미를 지니는 즉, 자연언어의 원칙을 벗어나는 문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이다. 만약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다면 즉, 자연언어의 원칙에 입각해 하나의 문장은 하나의 의미만을 전달한다면 위의 (12)과 (13)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까? 표면적으로 보면 위의 예문들은 “都”가 개체성 부여에 있어 그 가능 대상이 하나 이상 존재함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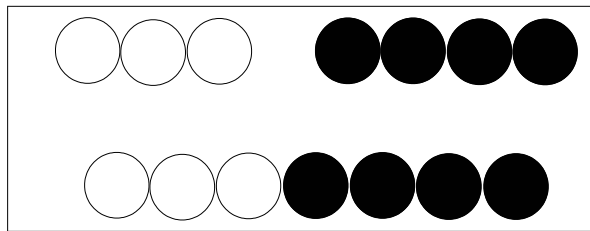
이에 본고는 본고의 견해를 좀 더 구체적이고도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인지언어학의 한 개념인 “근접성원칙(proximity)”¹⁸⁾을 차용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¹⁹⁾ 그렇다면 “근접성원칙”이 무엇이며 언어현실에 특히 “都”의 개체성 부여와 관련된 중국어 언어현실에 어떻게 적용되어 설명되어 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게슈탈트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공간적인 통합을 구성할 때의 게슈탈트 요인을 몇 가지 들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근접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다(임지룡, 2004). 근접성원칙은 구성요소 사이가 가까울수록 함께 묶이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가리

18) 또 다른 용어로 “근접성법칙”, “근접성효과”라고도 사용된다. 본고는 “근접성원칙”이란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19) “都”와 관련된 이와 같은 문장의 해석을 위해 董秀芳(2002) 역시 근접성원칙을 빌어 설명하려 하였으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언급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킨다. 이러한 근접성원칙은 심리학에서는 두 가지 사물의 공간적·시간적 관계의 거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임지룡,2004). 이러한 근접성원칙을 보다 손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의 그림을 보도록 하자.²⁰⁾



〈근접성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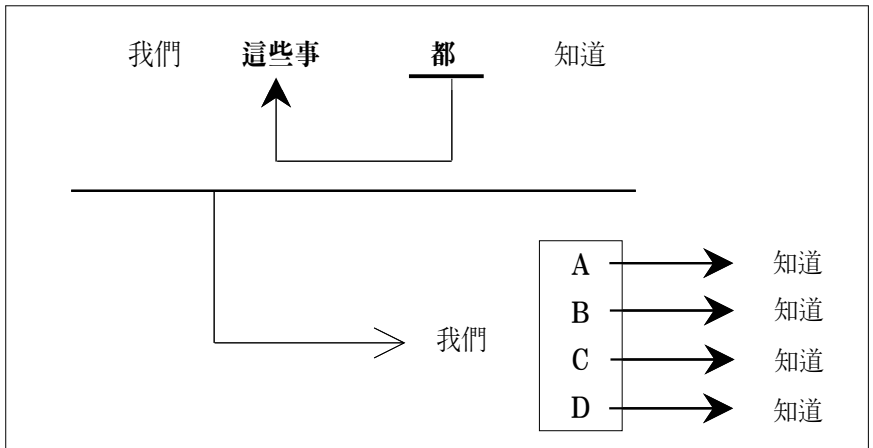
위의 그림은 “근접성원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으로 즉, “○○○”과 “●●●●”이 서로 떨어져 있는 “○○○ ●●●●” 그림은 서로 다른 사물로 구분지어 지각하고, “○○○”과 “●●●●”이 서로 긴밀하게 붙어있는 “○○○●●●●” 그림은 하나로 묶어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근접성원칙을 언어 연구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또한 우리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都”와 개체성 부여 대상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본고가 위의 근접성원칙을 언어현상연구와 관련해 이해해 볼 때, 근접성원칙은 의미적으로 가장 긴밀하고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두 성분은 반드시 선형구조에서 바라보았을 때 통사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붙어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다면, 위의 근접성원칙을 “都”가 사용된 문장 중에 “都”의 개체성 부여 가능 대상이 하나 이상 존재하는 문장에 적용하여 정확한 “都”의 개체성 부여 대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해 낼 수 있으리라 본다. 위의 예문(12)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都”가 개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은 [+다수개체]의 의미를 가진 “我們”과 “這些事”이 둘이 존재한다. 이 중 “都”의 개체성 부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근접성원칙에 입각해 볼 때 “都”와 통사적 거리가 가장 가까운 [+다수개체] 명사성 성분인 “這些事”라 이야기 할 수 있겠다. 즉, 의미적으로 “都”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這些

20) 이 그림은 임지룡(2004)에서 차용한 것임을 밝혀둔다.

事”가 “都”의 바로 앞에 위치하여 “這些事都”가 하나의 의미적 연결체로서의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의 도식을 보자.



〈근접성원칙을 이용한 “都”의 개체성 부여 실제 및 의미 관계1〉

위의 도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장 내에서 “都”는 개체성 가능 부여 대상인 “我們”과 “這些事” 중 “都”와 통사적 거리가 가장 가까운 “這些事”와 의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위의 예(12)은 다음(14)와 같이 하나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지, 의미적 중의성을 갖는 문장이 아닌 것이다.

(14) 우리는 이 몇몇 일들을 모두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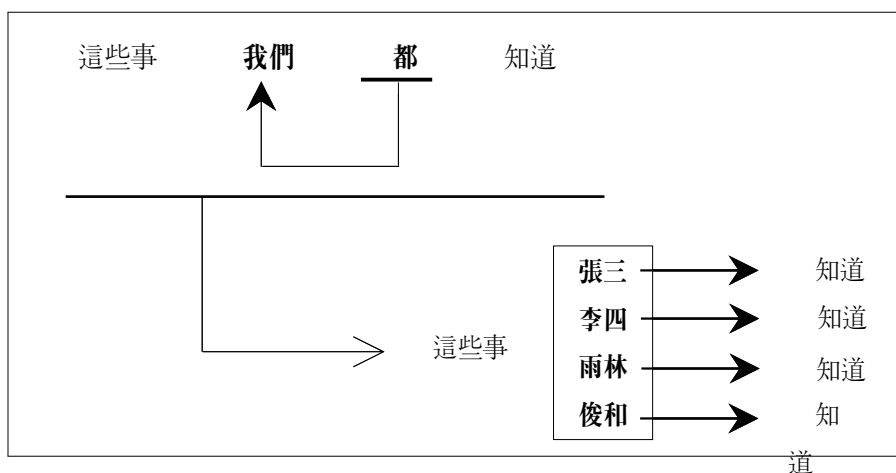
(발생한 사건 혹은 상황 각각을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고 “都”가 “我們”을 상대로 그 개체성을 부여 하려 한다면, 근접성원칙에 입각해 다음의 (15)과 같이 통사적으로 “我們”을 “都”의 바로 앞에 위치시키면 된다. 문장의 의미역시 변한다.

(15) 這些事我們都知道。

(이 몇몇 일들은 우리들 모두가 알고 있다.)

이를 도식으로 표현 하면 다음과 같다.



〈근접성원칙을 이용한 “都”의 개체성 부여 실제 및 의미 관계2〉

이러한 논리로 위의 (13)역시 설명이 가능하다. 즉, (13)에서 통사적으로 “都” 바로 앞에 위치한 명사성 성분 “我們” 혹은 “這几天”이 “都”로 하여금 개체성을 부여 받아 (13.a)와 (13.b)와 같이 문장의 의미를 결정짓는다 하겠다.

이처럼, 문장 내에 “都”에게서 개체성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가능 대상이 하나 이상 존재한다면, “근접성원칙”을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²¹⁾

3. “(X)+ [+ 단일개체]NP+ 都+(不)+VP”

21) 그러나 “都”가 사용된 모든 문장에서 “都”의 개체성 부여 대상 선택에 있어 앞에서 제시한 “근접성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문장 내에서 “都”로 하여금 그 개체성의 의미기능을 부여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하나 이상 존재하는 “這几天你都干了些什么?”와 같은 문장의 경우가 그러하다. 즉, 통사적 위치(근접성원칙)로 볼 때 “都”와 가장 가까운 대상은 “這几天”인데 진정 “都”의 개체성 부여 대상으로 가장 높은 가능성을 지닌 성분은 문장 끝부분에 위치한 “些什么”이다. 이러한 문장에서의 “都”의 개체성 부여 대상 선택문제는 “都”의 개체성 부여 대상의 문장 내 위치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고의 후속 논문인 “都”의 개체성 부여 대상의 문장 내 위치 문제”라는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앞 3.2의 논의가 “都”가 개체성을 부여 할 수 있는 대상이 다수 존재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논의였다면, 본 3.3은 본고가 3.1에서 제시한 “都”의 개체성 부여 대상 조건²²⁾에 의거 개체성을 부여 할 수 있는 대상이 문장 내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都”가 여전히 사용되어진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기로 하자.

본고의 3.1에서 논한 바와 같이 “都”로 하여금 개체성을 부여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수개체] 혹은 [-단일개체]²³⁾의 의미특징을 가진 명사성 성분이어야 한다. 그러나 언어현실은 이와는 사뭇 다르게 보인다. 먼저 다음의 문장을 보자.

(16) 連李四都認識她。(李四 조차도 그녀를 알고 있다.)

(17) 一句話都聽不進去。(말 한마디 조차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위의 예문 (16)와 (17)를 살펴보면 “都”가 사용된 다른 문장들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 중 “都”의 개체성 부여 대상이 될 수 있는 명사성 성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장에서 “都”의 사용은 과연 무엇일까? 혹 본고가 이야기 하고 있는 것과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都”란 말인가? 아니라면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의문에 답을 하기 앞서 위 예문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생긴다. 예(16)와 (17)를 보면, 중국어에서 비교적 특수한 “連+NP+都”²⁴⁾와 “-NP+都+不”구문이 사용된 문장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다면, 본고가 지금까지 논의해온 논지와 크게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즉, “都”의 개체성이란 의미기능을 부여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조건은 [+다수개체] 혹은

2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고의 “Ⅲ”의 “1”을 참고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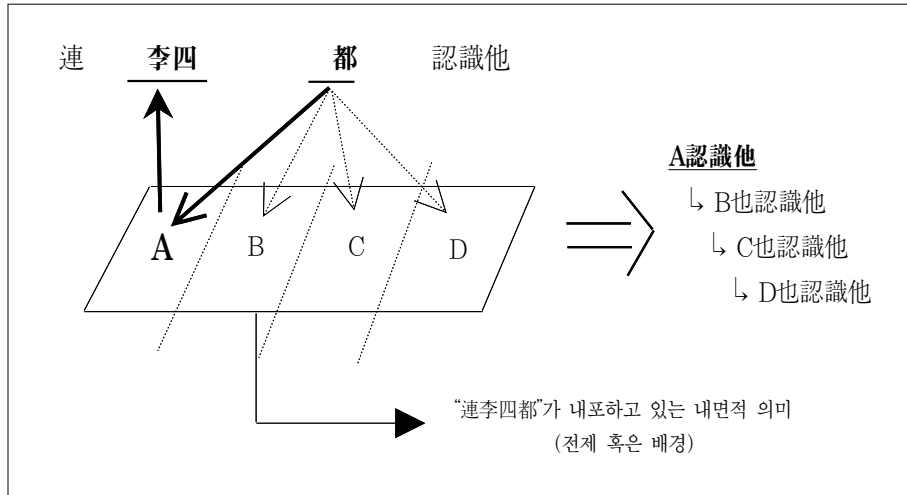
23) 다수개체로 분화가 가능한 단일개체를 의미함.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고의 “Ⅲ”의 “1”을 참고 바람.

24) 현재 중국어법학계에서는 “連+NP+都”구문이 갖는 어법적 기능과 의미에 대해 대체적으로 “강조어기설, 은연내포설, 대비초점설” 등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連+NP+都”구문의 전반적인 어법의미에 대해서는 본고가 논하려고 하는, 즉 “連+NP+都”구문에서 “都”가 갖는 의미기능은 무엇이며 그 의미기능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수혜를 받는지에 대한 논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고의 논의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단일개체]의 의미를 지닌 명사성 성분이여야 하는데, 위의 (16)와 (17)에서처럼 [+단일개체]의 의미를 지닌 명사성 성분이 “都”와 통사적으로 밀접하게 위치하고 있다면 본고가 제시한 “都”의 개체성 부여 대상 조건에 위배돼 위와 같은 문장에서 “都”는 다른 의미기능을 수행한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현재 중국어어법학계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위의 (16)와 (17)같은 문장에서의 “都”는 “심지어” 혹은 “여기의 강조”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받아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의 견해는 이와는 조금 다르다. 이러한 구문으로 이루어진 문장에서 사용된 “都”역시 앞에서 논의한 다른 문장들과 마찬가지로 개체성 부여의 의미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본다.²⁵⁾ 다만, 그 개체성 부여 대상이 조금 특수하다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특수성 때문에 “都”의 개체성 부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이러한 구문이 사용된 문장의 의미는 내면적으로 구문 중의 [+단일개체] NP를 예로 들어 언어환경(전제 혹은 배경)에서 존재 가능한 다수의 실체들 모두가 각각 VP가 의미하는 사건이나 상태에 처해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連+NP+都+VP”구조의 문장과 “一NP+都+不+VP”구조의 문장이 전하는 표면적 의미만을 보았을 때는 “都”가 “심지어” 혹은 “여기의 강조”등의 의미를 가진다는 기존의 설명이 적절할 지도 모르나, 그 내면적(혹은 심층적)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구조에서의 “都”가 수행하는 역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내면적 의미로 인해 “都”가 [+단일개체]의 의미를 가지는 명사성 성분에 그 개체성을 부여하는지 다음의 도식을 통해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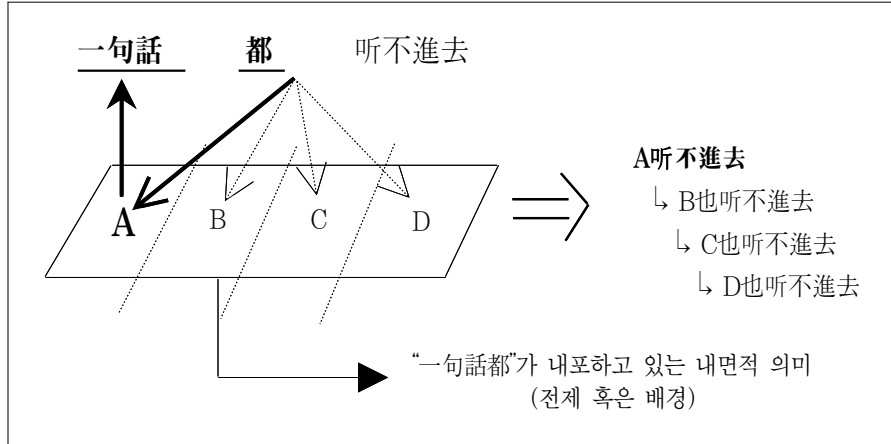
25) 蔣嚴(1998)는 “連+NP+都”구조로 이루어진 문장에서의 “都”는 “심지어” 등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총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蔣嚴(1998)는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화용론의 한 이론인 “관련성 이론(relevance theory)”를 적용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고 역시 “連+NP+都”구조로 이루어진 문장에서의 “都”가 갖는 의미는 “심지어”등이 아니라는 점은 蔣嚴(1998)와 견해를 같이하지만 이러한 구조에서의 “都”의 의미기능은 “총괄”이 아니라 역시 “개체성 부여”라는 견해를 견지한다는 것이 蔣嚴(1998)와는 다르다 하겠다.



〈“連+NP+都+VP”구문에서 “都”의 개체성 부여 실제 및 의미관계〉

위의 도식은 예(16)에서 “都”가 수행하는 의미기능과 개체성 부여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즉, 예(16)는 VP가 나타내는 사건(위의 도식에서 認識他를 가리킴)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 가능한 어느 한 집단(위의 도식에서 “A,B,C,D”로 이루어진 “□” 부분을 가리킴) 중 하나의 요소(A=李四)를 예로 들어 A가 포함된 집단 전체 요소들이 “都”로 하여금 그 개체성을 부여 받아 각각 모두 VP가 나타내는 사건을 실현한다는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특히, 여기에서 “都”의 역할은 직접적이고도 표면적으로 [+단일개체]의 의미를 갖는 “李四”에게 개체성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A를 포함한 집단 각각의 개체들에게 이미 개체성을 부여한 후 그 중 A(李四)를 부각시켜 도드라지게 함으로써 B,C,D 역시 그 개체성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예(16)에서 “都”의 의미기능 역시 “개체성 부여”이며 그 대상은 내면적으로 존재하는 [+다수개체]의 의미를 갖는 어느 한 집단의 다수개체 각각이며, 이 중 어느 한 요소를 도드라지게 하여 문장 전체의 의미를 완성한다 하겠다. 즉, 예(16)의 문장의미는 어느 한 집단에 속해있는 “李四”가 그를 알정도면, 집단 안의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각각 모두 그를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겠다. 이와 같은 논리로 예(17)도 설명이 가능하다.



〈“-NP+都+不+VP”구문에서 “都”의 개체성 부여 실제 및 의미관계〉

위의 도식을 통해 “-NP+都+不+VP”구문에서 “都”가 수행하는 역할 및 의미관계를 살펴보면, “都”는 이미 언어환경 중에 내제되어 있는 다수개체(A,B,C,D) 각각에 대해 그 개체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다수개체 중 어느 한 요소(VP가 나타내는 사건을 가장 잘 취할 수 있는 요소)를 선택해 부각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하겠다. 즉, 예(17)의 문장의 의미는 “一句話”로 대변되는 언어환경 중의 [+다수개체]NP에 대해 그 개체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 중 “一句話”라는 [+단일개체]NP를 대표주자로 삼아 언어환경 중의 다수개체NP 각각 모두 VP(听不進去)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정리하면, “連+NP+都+VP”구조 및 “-NP+都+不+VP”구조로 이루어진 문장에서 사용된 “都”는 “심지어” 혹은 “여기의 강조”등의 의미를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개체성 부여”라는 의미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이때 [+단일개체]NP가 “都”의 개체성 부여 가능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둘 구조가 가지는 독특한 내면적 의미 때문인 것이다.

IV. 나오면서

본고는 지금까지 소위 범위부사로 알려진 “都”의 의미기능을 기초로 하여 “都”의

의미기능 수혜 대상 선택 문제를 다루었다. 즉, 진준화(2010)이 새롭게 제시한 부사 “都”의 “개체성 부여”라는 의미기능을 기초로 하여 과연 “都”가 사용된 문장 내에서 “都”의 의미기능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이며,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고, 이러한 대상들이 문장 내 다수 존재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또한 본고가 제시한 “都”의 의미기능 수혜 조건에 의거해 의미기능의 수혜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이 “都”와 함께 사용된 독특한 문장은 어떻게 처리해야 효과적인지에 대한 문제 등을 다루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都”는 “개체성 부여”라는 의미기능을 수행하며, 이러한 “都”가 사용된 문장에서 “都”의 개체성 부여 가능 대상의 조건은 [+다수개체] 혹은 [-단일개체]의 의미특징을 지닌 명사성 성분이며, 만약 이러한 성분들이 문장 내 다수 출현할 경우, 이 중 “都”의 개체성 부여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장 높은 성분은 “都”와 통사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위치하고 있는 명사성 성분이다. 또한 “都”의 의미기능 수혜 조건에 의거해 의미기능의 수혜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이 “都”와 함께 사용된 독특한 문장인 “連+NP+都+VP” 및 “一NP+都+不+VP”는 “都”가 “심지어” 혹은 “여기의 강조” 등의 의미를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개체성 부여”라는 의미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이때 [+단일개체]NP가 “都”의 개체성 부여 가능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둘 구조가 가지는 독특한 내면적 의미 때문이다.」

본고가 “都”의 개체성 부여 대상 선택 문제에 대한 논의의 결론에 도달하면서 느낀 아쉬운점은 앞의 논의 중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수개체]+都+[+다수개체]” 구조를 가진 문장 및 “你家都哪兒不舒服?”, “你都去了哪些地方?” 등과 같은 문장에서 “都”가 그 개체성 부여 대상으로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가 “都”의 개체성 부여 대상의 문장 내 위치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후 지면이 허락된다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參考文獻】

임지룡 역(2004), 《인지언어학 키워드 사전》, 한국문화사

- 진준화(2010), 〈현대중국어 부사 “都”의 의미기능에 대한 인지적 접근〉, 《중국언어연구》, 제32집
- 陳俊和(2009), 《現代漢語“X+們”的語義功能研究》, 復旦大學博士學位論文
- 董秀芳(2002), 〈“都”的指向目標及相關問題〉, 《中國語文》, 第6期
- 蔣 嚴(1998), 〈語用推理與“都”的句法/語義特徵〉, 《現代外語》, 第1期
- 蔣靜忠(2008), 〈“都”指向單數“一量名”的制約規則及相關解釋〉, 《言語研究》, 第3期
- 蘭賓漢(1988), 〈副詞“都”的語義及其對後面動詞的限制作用〉, 《言語教學與研究》, 第2期
- 其
- 劉承峰(2007), 《現代漢語“語用數”範疇研究》, 復旦大學博士學位論文
- 蘇培成(1984), 〈有關副詞“都”的兩個問題〉, 《言語學論叢》, 第13輯
- 王 還(1983), 〈“All”與“都”〉, 《言語教學與研究》, 第4期
- 王 還(1988a), 〈再談談“都”〉, 《言語教學與研究》, 第2期
- 王 還(1988b), 〈三談“都”〉, 《世界漢語教學》, 第2期
- 邵敬敏(1996), 《現代漢語疑問句研究》,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 呂叔湘(1980), 《現代漢語八百辭》, 北京: 商務印書館
- 張誼生(2003), 〈範圍副詞“都”的選擇限制〉, 《中國語文》, 第5期
- 朱德熙(1984), 《語法講義》, 北京: 商務印書館
- Lee, HunTak Thomas(1986), 《Studies on Quantification in Chines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 Wu, Jianxin(1999), 《Syntax and Semantics of Quantification in Chines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中文提要】

基于“都”的“個體性”語義功能, 本文對“都”跟“都”的語義指向對象之間的關係從功能主義的角度做出了解釋。本文首先介紹“都”的“個體性”語義功能, 然后用這“個體性”語義功能來具體考察了“都”的語義指向對象的形式、語義、條件等的問題, 特別是在“〔+多數個體〕NP1+〔+多數個體〕NP2+都+VP”以及“(X)+〔+單一個體〕NP+都+(不)+VP”結構中“都”的語義指向對象選擇問題。

具有“〔+多數個體〕”或者“〔-單一個體〕”語義特征的名詞性成分是最有可能的“都”的語義指向對象, 如果在句子里多出現了“〔+多數個體〕”名詞性成分的話, “都”

的真正地語義指向對象是其中跟“都”最鄰近的名詞性成分。“連+NP+都+VP”以及“一NP+都+不+VP”結構中的“都”的語義指向對象是具有“〔+單一個體〕”語義特征的名詞性成分，特別注意的是這裏的“都”不是“甚至”的意義而是具有“對〔+單一個體〕’名詞性成分賦予個體性”的語義。

【主題語】

個體性，個體性賦與對象，條件，形式，語義，多數個體，單一個體

투고일: 2011. 7. 10 / 심사일: 2011. 7. 20~8. 5/ 게재확정일: 2011. 8. 10